

# “미술관 건립 열풍 부는 中 상하이, 광주엔 좋은 기회될 것”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2학기 개강 특강 왕순킷 中 파워풀 미술관장

21개 사립미술관 중 6곳 관장이 비전공자

전문 인력 부족 … 62%가 외국인 채용

“광주지역 예술가들 국제무대 눈 돌려야”

“중국 상하이는 최근 10년간 미술관 건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전공과 무관한 사람들이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와 연계한다면 양 도시 미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일 왕순킷(Wong Shun-Kit) 중국 파워풀 미술관장은 “문화도시로 변신하고 있는 상하이 상황이 광주에게는 기회다”고 조언했다.

그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4기 리더스아카데미’ 2학기 개강 강사로 나서 ‘상하이 미술관 건설 열풍’에 대해 강의했다. 현재 건립됐거나 예정된 미술관 현황, 문제점, 중국 미술 발전 요인에 대해 짚었다.

25년간 홍콩 등에서 작가·큐레이터로 활동한 왕 관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중국 최초 사립미술관인 상하이 힐랄야미술관을 역임했다. 전통

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진 기획전 등을 열며 보수적이고 진부한 중국 미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왕 관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는 현재 21개 사립미술관이 있으며 이 중 30%에 달하는 6곳 관장이 비전공자다. 자체적인 인력 조달에 난항을 겪으며 전체 62%(13곳)가 외국인을 채용했다.

상하이는 지난 2005년 중국 최초 사립미술관인 ‘톈진현 현대미술관’(현 힐랄야미술관) 개관을 계기로 문화도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지난 2010년 열린 상하이 아시안 게임을 활용하며 현재는 21개에 이른다.

왕 관장은 그 이유로 상하이는 원래부터 근대문화 예술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입장료 수입만으로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는 관람객 동원력을 뛰었다. 유료인 사립미술관은 공립(무료)에 비해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이며 관람객이 많이 찾고 있다.

왕 관장은 이날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가진 소감



지난 6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4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에서 왕순킷 중국 파워풀 미술관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까지 ‘상하이 MoCA’ 열린 쿠사마 야오 이 전은 30만명이 방문하며 관람객 방문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건립비 지원, 세금 공제, 토지 제공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 결과 황포강 인근 공장 지대였던 서안 지역은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되며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가 됐다는 설명이다.

왕 관장은 이날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가진 소감

을 밝히기도 했다. “상하이와는 달리 광주 각 대학들은 미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비교됐어요. 오늘 방문한 조선대 미술대학은 오랜 역사, 미술관 등을 보유하고 학생 작품을 볼 수 있어 즐거운 오후시간을 보냈습니다. 상하이와 교류를 추진한다면 미술계에 큰 획을 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6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화전당 규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중국에는 이렇게 도서관, 전시관, 사무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매 행사마다 방문했는데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광주 상황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곁으로 그는 지역 예술가들이 국제화에 눈을 떠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세계적인 작가를 배출한 이유는 자국내 활동에 제약을 느낀 작가들이 해

외로 진출했고 교류를 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체제에서는 그동안 자유로운 활동을 못했어요. 예술가들이 스스로 각성 하며 세계로 나간 이유죠. 경제 발전을 이룬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예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충분하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지방변호사회, 복지시설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7일 추석을 맞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중증장애인보호시설인 ‘희망의 집’과 사회복지법인 ‘형제사’ 등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7곳을 방문해 이웃돕기 후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 새마을지도자 남구협, 신애원에 후원품 전달



새마을지도자 광주남구협의회(회장 정남석)는 지난 6일 추석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인 광주 신애원을 방문해 쌀과 칫솔세트 등 후원품을 전달했다.

〈새마을지도자 광주남구협의회 제공〉

## 김윤하 전남대병원 교수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수석부회장 취임

김윤하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최근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수석 부회장에 취임했다.

김윤하 교수는 최근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린 제22차 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서 학회발전을 위해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아 수석 부회장에 선임됐다. 이로써 김 수석 부회장은 오는 2018년 8월까지 2년간 임기를 맡으며,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연구회 회장도 겸임할 예정이다.

지난 1995년 대한타아의학회로 출범한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임산부와 태아의학의 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학회와의 유대 증진

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임신·출산·태아치료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한편 지난 1985년 전남 대의과대학을 졸업한 김 수석부회장은 현재 호남모체태아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재정위원장, 학술위원장, 대의원, 대한산부인과조음파학회 재무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경찰청 어린이집 개원 … 직원들 육아부담 줄어

전남경찰청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7일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지상 2층 신축 건물로 전환경자재를 사용했

다. 전남경찰청 및 인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생태유아공동체를 표방, 원아들에게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보육의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임신·출산·태아치료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한편 지난 1985년 전남

대의과대학을 졸업한 김

수석부회장은 현재 호남모체태아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

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재정위원장, 학술위원장, 대의원, 대한산부인과조음파학회 재무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운영은 3년간 광주대에서 맡는다.

박경민 전남경찰청장은 “직원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운영은 3년간 광주대에서 맡는다.

박경민 전남경찰청장은 “직원들의 양육부

담을 줄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

들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

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광주 이계례씨 최우수상



‘2016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에서 이계례(왼쪽 첫번째)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이계례(68·광주산성인문해초등학교 교씨)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이양순(58·광주희평생교육원)·정영자(74·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씨와 정영자(72·광주송정도서관)씨는 각각 특별상과 글자꽃상을 받았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ju.co.kr〉

## 전남우정청, 상무시민공원서 ‘사랑해 빨간밥차’ 급식 봉사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 우정사회봉사단은 7일 상무시민공원에서 ‘사랑해 빨간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단 단원 15명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결식·독거노인 등 20여명에게 ‘사랑의 행복 밥상’ 무료배식과 추석맞이 기념품을 전달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지역 우체국에서 자발적 으로 성금을 조성, 우체국공익재단 지원금 등



을 활용해 매년 광주·전남지역 불우이웃 200여명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김형호(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강민정씨·장남·정재(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군 강상윤(KT 서광주지사)·최금선씨·장녀 진홍양=10일(토) 낮 12시 서울 강남구 아띠랑스웨딩(서울 상록회관) 4층 그랜드볼룸.

### 종친회

▲경주배씨 광주중친회(회장 배경석) 정기월례회=8일(목)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싱싱한 민어·전어회관, 문의 010-8623-4949.  
▲전주이씨 대동종양원 광주·전남지역(지부장 이달우) 이화회 월례회=13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

###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김복기(010-9092-0343).  
▲광주광산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중독문제(알코올·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당사자나 가족 대상 무료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비공개 무료상담 제공(www.gsgacc.or.kr) 문의 062-714-1233.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장애인 일상생활활동작지도 이용인=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사업팀 062-943-0420.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

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 부음

▲최범영씨 별세 재천(전 국회의원)씨 부친상=발인 8일(목) 해남종합병원 장례식장 061-533-4444.

▲김순례씨 별세 이홍래(전주 MBC 국

장)·덕래(사업)씨 모친상 이용익(매일경제신문 기자)·서연(서울 대원국제중 교사)씨 조모상=발인 8일(목) 전주병원 장례식장 특설 063-227-0444.

▲왕복수씨 별세 윤재(장흥군의회 부의장)·성채·기채·희숙·미숙씨 부친상=발인 9일(금) 장흥 중앙장례식장 010-3601-4856.

▲방영선씨 별세 장성호(KBS 드라마 사업부 센터장)씨 빙부상=발인 9일(금) 전주 모의장례문화원 101호 063-286-4444.

▲이근현씨 별세 계만(조선대학교 교수)·계창(금호타이어)·계문(서울시정·영례씨 부친상 김순옥(미력조동학교)·오종례(롯데쇼핑)·김현미씨 시부상 조국진씨 빙부상=발인 9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김금양씨 별세 김영현·준현·창현·용현·장만·현수·명숙·종숙·용